

노인거주 재래농가의 수장 공간

Storage Space of the Elderly Residents in Traditional Farm Houses

이인수^{*} / Lee, In-Soo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storage space types of old-fashioned traditional dwelling units where older couples maintain their traditional farming lives. In this study, it is observed that residents of the traditional farm-houses are exposed to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and emotional pressures.

However,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older residents are generally manifesting a consistent subculture of the old-timers without noticeable complaints. The usage and morphology of storage spaces are as follows:

- (1) Storage space in the ceiling are under control of old couple, and used for seasonally varied farm products and household equipment.
- (2) There are two types of storage spaces outside backdoor of kitchen; a dry type and a wet type spaces. And the two types are used for keeping farm & dairy product, dry bean sauce, dry persimmon, and dry pumpkin.
- (3) All the households use longterm storage space under wooden floor; the hidden ground is used for keeping miscellaneous tools and fermented foods for years.

Overall in this study, it is observed that traditional farm houses are well modified for physically and emotionally frail elderly residents.

키워드 : 계절변화형, 자녀전용공간, 長期보존공간, 집중건조공간

1. 서론

본 연구는 노인들이 생활하는 재래농가의 식품및 생활도구 收藏 공간에 관한 경험적 연구다.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 확산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60세 이상 독신노인, 혹은 노부부만 거주하는 이른바 노인단독 가구의 비율이 8.7%에 이르고 특히 郡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경우 전체 가구중 노인단독 가구의 비율이 21.6%에 이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노인거주 재래농가는 집수리, 보수, 환경관리등 주생활과 관련된 신체적 부담에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다. 인구밀도가 낮고 자녀의 도시이주 현상이 가속화되는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단독 가구는 화재, 질병등의 災變이 발생할 때 이웃이나 행인으로 부터 인도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은 위험 집단이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를 이상적인 노후생활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규범에 비추어 볼 때 도시로 이주한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小遠할 경우 재래농가 거주 노인은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이 된다.

노인만 거주하는 재래농가의 식품및 생활도구 수장공간을 연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선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나 생존의 기본요소와 관련된 공간구성 양식을 연구하는 문화보존 행위이며 동시에 소외계층인 농촌노인의 익숙한 공간활용 습성을 연구하여 농촌형 노인주택 디자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현재 60세이상 한국 노인들이 생활하는 재래농가의 住居行態 중 수장공간에 관한 관찰및 면담에 의해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로서, 세부적인 연구목적과 활용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노인거주 재래농가에 존재하는 收藏공간을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있다. 전통한옥의 주요 실내 주거공간(침실, 거실)과 가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그 외 공간에 대해서, 특히 농가의 세부적인 수장공간에 대해서는 연구

^{*} 정희원,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조교수, 가정복지학 박사

된 바가 매우 미미하므로 이러한 연구는 재래농가에 대한 더욱 정밀한 실내디자인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본 연구의 또다른 목적은 이러한 수장공간에 노인들이 어떠한 식품과 생활도구를 보관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수장공간별 용도분석은 노인용 전통농가를 설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수장공간의 외형뿐 아니라 명칭 및 용도를 보다 정확히 알게 하는 교육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론적 배경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옥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거 실내환경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환경은 삶의 만족도와 건강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

재래농가의 收藏공간과 노인의 생활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은 하위문화론²⁾, 주거환경과 생활만족에 관한 이론³⁾, 전통주택의 다락에 관한 이론⁴⁾ 그리고 상징 및 교환이론⁵⁾으로 정리된다.

하위문화론이란 인간이 연령, 성, 지역, 인종 등 다양한 사회학적 요인별로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독특한 하위문화(subculture)를 이루려 하는 심리, 행동특성을 지칭한다²⁾. 노인들은 자기가 유지해 오던 사고(思考), 행동양식이 옳지 않거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친숙한 습관을 고수하는 경향이 높아 일반 대중의 문화와 현저히 다른 하위문화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들면 플라스틱 보다는 낫그릇에 밥을 담아 식사하려는 습관, 침대보다는 온돌방을 선호하는 습관, 의자보다는 방바닥에 앉으려는 습관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노인만 거주하는 농촌가옥 경우 이러한 하위문화성향은 집의 구조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경직성과 애착심을 고수하여 흙벽, 재래식 화장실과 부엌, 아궁이식 온돌방, 노인만의 은밀한 수장공간, 옛날 농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습성으로 고정되어 주거 환경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태현과 서승희의 연구(1987)와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의 연구(1995)에 의하면 농촌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살아온 주거지역과 주택에 애착을 가지므로 주거환경의 미관적 문제에 대해 관대한 반응을 보인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주거지가 노인들의 욕구를 어느정도 만족시켜 주는가에 달려 있는데 주거욕구는 노인자신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배경에 의해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1)배관, (2)난방, (3)소음, (4)일조(日照), (5)통풍, (6)공해, (7)주택의 넓이, (8)교통 및 공공시설과의 거리등을 들 수 있다. 수장

공간은 주택넓이와 난방, 日照 및 통풍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공간이다. 농수산물의 제조와 보관은 적절한 일조와 통풍, 그리고 난방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작업과 收藏을 필요로 하고 제한된 주택에서의 수장공간 확보는 다른 주거공간의 환경과 이에 따른 만족감과 직결된다. 채소 田作이 主業인 농가는 밭에서의 1차건조와 텃밭부에서 단을 묵은후의 2차건조 및 보관을 위해 외부공간(동네공터)과 연결된 행랑채 앞 마루주변에 작업 및 수장공간을 확보해야 하며³⁾ 건조작업 공간과 연결된 침실에서의 주거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만족감 저하의 단점이 있는 반면 적절한 외부인과의 사교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오히려 상승요인이 된다. 이처럼 농가 수장공간의 확보는 주거환경 및 만족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상징 및 교환이론⁵⁾은 가옥의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지향하는 상호 원만한 관계유지와 상징적 내면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은 가옥의 구조, 공간배치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주고 받으며 가족이 추구하는 전통과 사상의 상징성을 유지한다. 노인을 위한 별채를 들 때는 텃밭과 소여물 끓이는 작은 부엌을 들음으로써 토지 및 가축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인시키는 경우, 안방의 출입문과 사랑채 출입문이 서로 마주보지 않게 하는 경우, 대청마루는 남쪽을 향하고 마당 동쪽에는 감나무를 심는 관습등이 상징 및 교환이론에 속한다. 특히 대가족이 공동체 주거문화를 구성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접해서 사는 친족의 세대수, 토지의 공유, 노동분담 형태에 의해 가옥의 구조와 공간구성이 결정된다. 요약하자면 상징 및 교환이론은 친족의 결속(solidarity), 재산공유, 위계질서가 조화를 이루며 가옥구조 및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락은 우리나라 전통농가의 전형적인 수장공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음이 최근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다락에는 부엌다락, 房다락, 누다락, 쇠다락 등 네가지 유형이 확인되고 있는데⁴⁾ 부엌다락은 부엌천장 밑에 부착된 수장공간으로서 그릇과 건조식품, 조리기구 수장공간으로 쓰였고, 방다락과 누다락은 방과 대청마루에 마련된 수장공간으로 의복과 귀중품의 수장공간이다. 누다락은 아궁이였으나 대청마루 밑 땅과 접한 수장공간으로서 일정한 온도유지가 필요한 越冬농작물(감자, 고구마)과 실외사용 생활도구(함지박, 명석 등)의 수장공간이다. 쇠다락은 외양간 옆에 자리잡은 수장공간으로서 주로 가축사료와 농기구를 보관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가는 창고 외에 주거공간에 인접한 소규모 수장공간활용이 매우 다양하게 자리잡아 전통문화로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97년 3월부터 6월까지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서 예산군으로 향하는 국도 주변에 위치한 재래농가중 60세이상 노인 부부만

1)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 pp.65-78

2) Oliver, The Dwelling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5, pp.14-17

3) 김태현·서승희,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7(2), 1987, pp.77-92

4) 최인호·홍승재, 전통주택의 다락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2), 1997, pp.1-16

5) 이인수, 노인주거와 실버산업, 도서출판 하우, 1997, pp.110-115

이 농업을 주업으로 거주하고 있는 16가구를 선정, 방문하여 가옥의 크기, 형태, 구조, 그리고 식품및 생활도구의 收藏공간 구성을 관찰하고 그 수장공간의 활용과 관련된 주거생활에 대해 노인부부의 의견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재래농가”란 해방 이전에 목재와 흙등 자연물로 지어진 농가로 정의되며 조사대상 가옥과 가족의 제반특성은 다음과 같다.

(1)본 연구에서 관찰된 16개 가옥 면적은 침실, 대청마루, 부엌등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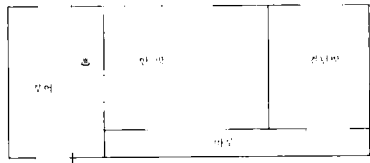
거공간만을 계산하여(창고,헛간제외) 최소 15평에서 최고 32평의 중소규모다.

(2)가옥의 주요 건축재료는 목재와 진흙이며 벽돌, 콘트리트, 철제 조립 건축물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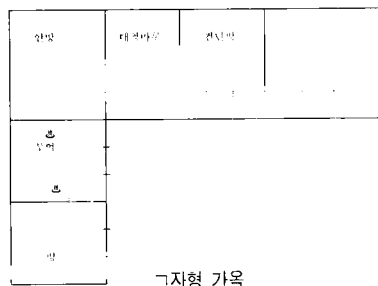
(3)가구원은 가옥에서 20년 이상 농업과 채취(산나물, 도토리등), 농림산물 手加工(목, 메주등)을 주요 생업으로 살아왔으며 집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4)16개 대상 가옥은 모두 무쇠가마솥이 있는 재래식 아궁이와 프로판 가스식 입식 싱크대를 겸비한 입식-재래식 겸용 부엌을 사용하고 변소는 두업에 사용하도록 재래식 구조를 갖추었으며, 난방은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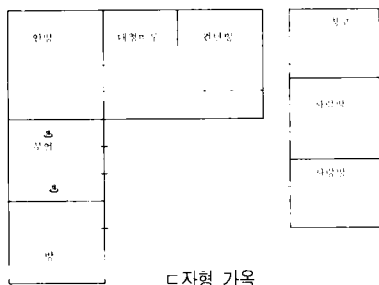
(5)조사대상 노인의 평균 연령은 만 64세, 최연소는 61세, 최고령은 76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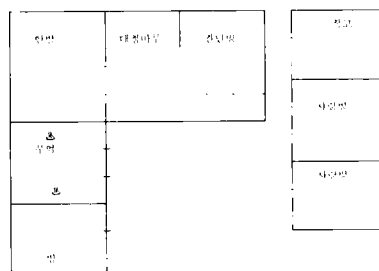
-1자형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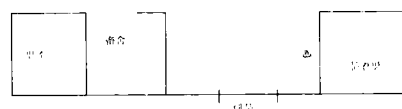
2자형 가옥



3자형 가옥



4자형 가옥



5자형 가옥

32 가옥의 평면구조

본 연구 대상 가옥의 평면구조는 -1자형, 1자형, 2자형, 3자형 등 총 4개 기본구조로 분류되는데 -1자형가옥은 3채, 1자형 가옥은 7채, 2자형 가옥은 4채, 3자형 가옥은 2채로서 1자형 가옥이 전체의 44%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1자형 가옥은 왼쪽에서 직각으로 꺾어진 형태와 오른쪽에서 꺾어진 형태의 2종류가 있다. 2자형은 1자형 가옥에 창고와 사랑방이 있는 별채가 근접하여 2자를 이루는 구조를 지칭하며, 3자형은 2자형 가옥에 대문과 문간방 건물이 첨가되어 3자의 폐쇄구조를 이룬 구조를 지칭한다.

본 연구의 가옥 평면구조에 있어 안방은 부엌에 인접하고 노인부부 침실로 이용되는 주거공간을 지칭하며, 건넌방은 마루를 끼고 안방과 인접한 방을 지칭한다. 대형 마루를 지칭하며 그 외의 마루는 뒷마루라 칭한다. 사랑방은 2자와 3자 구조에서 안방이 있는 건물과 떨어진 별채 건물에 창고와 인접하여 있는 방을 지칭한다. 문간방은 대문과 인접한 방을 지칭하며 그 외의 방은 특정한 지칭을 하지 않는다<그림1>.

33. 연구내용및 방법

본 연구는 16개 가옥 주거구조물(Living unit)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공간중 식품과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수장공간에 대해서만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공간의 (1)구성시기, (2)보수및 구조변경, (3)주요 용도에 관해 노인부부의 면담이 실시되었다. 특히 주거구조물 내의 수장공간에 대해 관찰되었기에 가구나 문갑등 위치이동이 가능한 보관함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식품이란 농가에서 자연스런 방법으로 획득한 産物(예:곡물, 채소, 축산물, 어물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생활도구란 재래농가에서 노인부부가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를 의미하는바 예를들어 식기, 청소도구, 가전제품등을 말하며 영농에만 필요한 장비(예:경운기, 콤팩터등)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1> 연구대상 가옥의 -1자형, 1자형, 2자형, 3자형의 기본 평면구조

(--- 출입문 ● 아궁이)

4. 조사결과 및 고찰

4.1. 안방다락

안방다락은 조사대상 16개 가옥중 68.8%인 11개가옥이 구비하고 있는 주요 수장공간이다. 안방다락은 안방에 문이 있으며 부엌천장 공간을 차지한다. 그곳에는 高價 기호식품(꿀, 설탕, 참깨, 고춧가루, 술, 담배等)과 특별한 경우 사용하는 생활도구(바느질그릇, 祭器等), 비상약품, 그리고 비축용 소비물품(양초, 소금, 성냥, 건전지, 화장지, 비누, 모기약等)을 보관하는 장소다. 안방다락은 안방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부부가 직접 관리하는 주요 식품과 소비품 목 및,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수장공간이다. 또한 안방다락은 공간 대부분이 부엌천장에 자리잡고 있어<사진1> 아궁이 熱氣가 상승하기 때문에 생선, 육류, 감자, 과일등 고온에 의해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품목은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안방다락은 추석이나 설, 제사등 가족전체가 모일 때 祭需용품을 보관하는 공간이며, 高價는 아니지만 완전히 건조하여 고온에 변성이 안되는 식품(메주, 건어물, 대추, 밤등)을 필요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안방다락은 노인이 거주하는 재래농가에 있어 안방을 통해 출입하며 아궁이 바로 위 부엌천장까지 뻗어있기에 (1)노인부부의 관리 및 통제, 그리고 (2)고온에 강한 물품 보관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보편화된 수장공간이라고 하겠다.



<사진 1> 안방 다락은 2단의 계단형으로 되어 아래 부분은 부엌 아궁이 위를 덮고 윗 부분은 부엌 천장까지 뻗어있다.

4.2. 건넌방 壁藏

건넌방 벽장은 조사대상가옥의 18.8%인 3개 가옥이 구비하고 있는 수장 공간으로서 1가형 가옥에만 존재한다. 건넌방 벽장은 대청 마루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마주하는 방 뒷 벽에 있는 공간인데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도구, 예를 들어 선풍기, 석유난로, 돛자리등과 과거 자녀들이 사용하던 물건(책, 옷, 가방등)을 주로 보관한다. 3가구중 1가구의 건넌방 벽장은 밖으로 통하는 문이 따로 있어 방 뒷문 앞 툇마루와 연결되는데<사진2> 이러한 경우 툇마루는 건조시킨 농산물의 가공(고추다듬기, 마늘썰기, 콩깍지마기等)의 공간이 되며 벽장은 툇마루에서 가공한 식품을 처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공간이 된다. 즉, 건넌방 벽장은 노인부부의 관리와

통제가 항상 미치지 않는 계절형 생활도구의 영구적인 수장공간이며 완전건조된 식품의 일시적인 보관공간이라고 볼수있다.



<사진 2> 바깥쪽 툇마루와 연결된 사랑방 벽장 출입구

4.3. 간이 부엌

간이 부엌은 조사대상가옥의 31.3%인 5개 가옥이 구비하고있는 공간으로서 收藏과 가사노동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이다. 간이부엌은 안방 옆에 있는 제1부엌의 기능을 보조하는 공간으로서 1가 가옥경우 제1부엌과 건넌방 사이 스텝트 지붕으로 덮은 공간으로서<사진3> 연료, 곡식, 주방기구 일부(땃돌, 절구等)를 보관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과거 大가족이 살때 노인이나 행랑채 머슴이 사용하던 소형 부엌공간인데, 노부부만 남게된 후는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부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옥수수나 고구마, 떡등 오랫동안 즐기던 간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평소에는 장작과 쌀자루, 절구등을 보관하는 수장공간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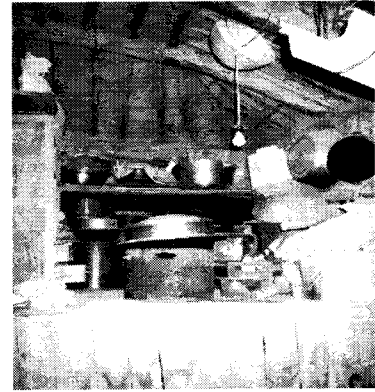
<사진 3> 사랑채 노인이 사용하던 간이부엌

1가가옥 경우 안방과 부엌이 있는 본채와 사랑채를 잇는 중간 부분에 대청마루 대신 가마솥과 화덕, 선반과 배수구가 있는 간이부엌이 있는데<사진4> 소량의 된장, 고추장, 간장, 새우젓, 마늘, 양파를 보관한다. 즉, 장독대와 창고에서 일정기간 먹을 양을 퍼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라 하겠다.

1가가옥 경우 2가구 모두 동일한 위치에 간이부엌이 있다. 첫번째 1가가옥 경우 대문을 끼고 있는 문간방 옆 구석에 마련된 소규모 간이 부엌으로서, 과거 노인이 거주하거나 세를 놓았을 때 부엌으로 사용하였는데 수도나 싱크대는 없고 무쇠솥 아궁이와 선반이



<사진 4> 가미술이 설치된 간이부엌



<사진 6> 개방형 부엌다락

있는 소규모 간이 부엌인데 때때로 소나 염소, 개사료용 죽을 쑤기도 한다. 지금은 옛 정취만을 즐긴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취사도구와 기타 생활도구(절구, 맷돌, 쪼루, 명식 등)를 보관한다. 두번째는 이자가우 경우 간이 부엌 위치와 내부구조는 첫번째 가우와 비슷한데 구조부분 벽이 외부로 약간 돌출하였으며<사진5> 거의 사용하지 않는 취사도구나 생활도구의외에 삼태기, 광주리, 불지계등 농번기에 자주 사용하는 생활도구도 보관하고 있다.



<사진 5> 이자형 가옥 행랑채와 사랑채 연결부분에 있는 간이부엌

4.4. 개방형 부엌다락

개방형 부엌다락은 이자 가우 1채에서만 관찰되는 특이한 형태의 수장공간으로서 문이 없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다. 부엌 한쪽 벽면에 나무로 대형 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위와 천장사이 공간을 이용한다<사진6>. 화덕, 대형 앞미늘술, 바가지, 바구니 등 주로 명절때나 손님접대에 사용하는 대형 취사도구를 보관하며 바가지, 가우와 플라스틱 상자도 1점씩 보관한다. 부엌구조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가스렌지가 들어오면서 앞미늘술과 기타 취사도구, 그리고 목재 잔장의 사용이 명절때와 손님접대, 농번기 취사경우로 특히 제한되게 되자 이러한 도구의 보관공간이 필요하게되어 부엌 한쪽 벽에 개방형 다락이 설치되었다. 만약자면 부엌의 부분적 현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생활도구 보관공간이다.

4.5. 부엌 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부엌분할 안마당은 대부분 재래 농가에 있어 채소를 다듬거나 빨래를 하던등의 다용도 가사노동 공간으로 활용되고있다. 이에 비해 연구대상가옥중 이자형 가우 2가우는 부엌 뒷문 밖 뒷뜰에 收藏공간이 구비 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부엌 뒷문 밖 수장공간은 濕式형 공간과 乾式형 공간등 현저한 기능적 차이가 있는 2종류가 관찰되었다. 습식형 공간은 수도와 배수구를 갖춘 보관공간으로서, 농작물과 축산물을 수시로 씻고 다듬고 껍질을 까고 소금에 절이는등의 가공작업을 한뒤 플라스틱 용기나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는 곳이다<사진7>. 60대초반 부부가 죽, 냉이, 더덕, 도라지, 미나리, 생강, 마늘등 高價 부식류를 손질한 후 응달에 수일간 보관한 뒤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는 농가에서 관찰된 경우다. 닭을 잡거나 왕새우를 손질하여 일시 보관했다가 장날에 내다 팔기도한다. 즉, 부엌뒤 뒷뜰에 구비된 습식형 수장공간은 손질하고 세척한 뒤 일시적으로 음식에 식품을 보관하는 농가에서 볼수있는 형태다.



<사진 7> 부엌 뒤 문 밖의 습식형 다용도 공간

건식형 공간은 부엌과의 긴밀한 연결을 추구하되 가급적 습기를 피하기 위해 구비된 공간이다. 메주와 낫감, 호박등을 건조시키는 공간으로서 필요시 공간 가운데 연탄난로를 설치하기도 한다<사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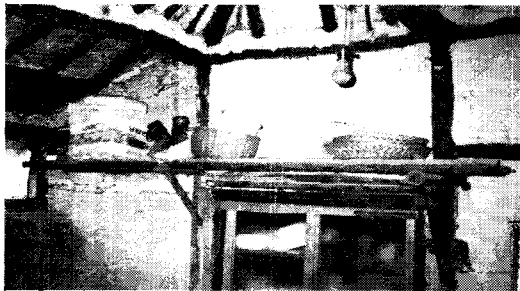
기능면에 있어 습식형과는 크게 대조되는 곳으로서 주로 부엌에서 끓인 식품(예:메주)을 내와서 건조 시키고 겨울동안 보관하기도 하고 꽃감이나 호박, 무우등을 건조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부엌뒤 뒷뜰에 구비된 건식형 수장공간은 농작물을 부엌에서 끓이거나 씻은뒤 습기가 없는 곳으로 내와서 아궁이나 난로 가까이서 늦가을부터 겨울동안 서서히 건조시키며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사진 8> 부엌 뒷 문 밖의 건식형 다용도 공간

4.6. 부엌 선반및 불박이 찬장

대상가옥중 2차 가옥 1가구에서는 부엌안에 선반과 불박이 찬장이 <사진9> 주요 수장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부엌 벽 속에 넓이 30cm 길이 60cm정도의 불박이 醞藏이 있고 찬장 위에는 넓이 30cm 길이 120cm정도의 선반이 있어 상호 보조역할을 한다. 찬장에는 간장, 기름, 소금, 설탕등 조미료와 기호식품, 그리고 커피잔을 보관하며 선반에는 그릇과 바구니등 조리도구를 보관한다. 싱크대 위에 여러가지 기호식품과 조리도구가 있기때문에 선반및 불박이 찬장은 노인부부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명절때 자녀가 방문하여 차례음식을 만들거나 많은 음식을 준비할때 자녀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호식품과 도구들을 보관하고 있다. 노인부부가 평소에는 소량의 식품과 도구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장공간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방문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벽속 불박이 찬장과 벽위 선반을 만들어 평소 보관하다가 필요시 자녀에게 개방되는 공간. 즉 자녀와의 교류를 중요시하는 노인의 수장공간이다.



<사진 9> 부엌선반및 불박이 찬장

4.7. 대청마루 간이 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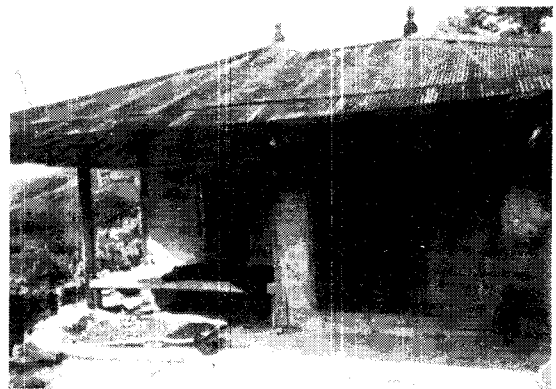
대청마루 간이 벽장은 1개가 관찰되었는데 -자형 소형 농가 안방 앞 대청마루 옆 벽면에 있는 소형 벽장으로, 노인 특유의 재래농가 생활을 반영하는 수장공간이다. 이공간의 크기는 가로 약 50cm, 세로 약 130cm, 넓이 약 50cm의 소규모로서 노인의 체형과 생활습관에 맞는 오래된 소형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이다. 소반, 향로, 돛그릇, 약탕기, 제기등 조상의 습결이 어린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인데 제사나 손님접대등 특별한 경우에만 이 수장공간을 열어보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앞에 걸레바구니, 빗자루등 청소도구를 쌓아놓아 막아 놓는다<사진10>.



<사진 10> -자형 소형가옥의 대청마루 간이벽장

4.8. 마루밑

마루밑은 정도 차이가 있으나 조사대상 가옥 전부가 구비하고 있는 수장공간이다. 마루밑 공간은 크게 두 종류가 관찰되는데 그 첫째는 땅 위에 돌계단을 쌓은 위에 설치된 유형, 즉 돌바닥 위에 설치된 것이고<사진11> 둘째는 흙바닥 평지위에 그대로 설치된 마루의 밑 공간, 즉 평지 흙바닥위에 설치된 것이다. 돌계단이나 댓돌위에 설치된 마루의 밑 공간은 특별한 목적으로 주로 신발, 우산, 청소도구, 요강등 잡다한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곳으로서 대부분의 가옥인 14개 가옥이 이에 해당한다.



<사진 11> 돌바닥에 설치된 마루밑 수장공간

평지와 같은 높이 흙바닥 마루밑의 수장공간은 1차 2개 가옥에서 관찰되는데 각각 특이한 기능을 갖는다. 1개 가옥경우 마루밑 공간 깊이는 평지와 같으며 주로 신발, 청소도구, 생활도구, 그리고 소형 농기구(호미, 낫)등을 보관하는데 집 뒷부분에 마루밑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나 있고 마루밑에 보관된 농기구를 집 뒷부분 텃밭에서 사용하다가 다시 넣고 잠그기에 편리한 구조다. 마루밑 공간은 깊지 않고 땅과 같은 높이지만 대정마루밑의 또다른 문이 있어 마치 땅바닥에 있는 문처럼 여러가지 작은 농기구를 편리하게 꺼내거나 넣을 수 있다<사진12>. 또다른 가옥은 마루밑 공간에 좀더 깊은 지하실을 파놓고 사람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는 생강, 감자, 고구마, 무우등 越冬 농작물과 새우젓, 명란젓등 젓갈류를 겨울동안 보관한다. 즉 공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람이 출입할 정도의 지하 통로까지 확보하여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사진13>.



<사진 12> 마루밑 공간 뒷 쪽에 부착된 소형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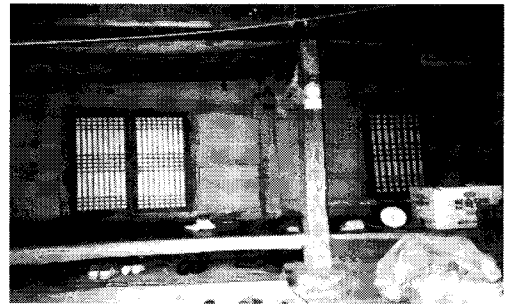


<사진 13> 지하실과 큰 출입구가 첨가된 음지형 마루밑 공간

4.9. 마루선반

마루선반은 1차형 1개 가옥에서 발견된 수장공간인데, 안방과 사랑방을 1차로 연결하는 마루 위 벽에 길이 약 6m, 높이 약 30cm로 설치된 선반이다. 모기약, 비누등 소모품과 꾸러미, 장화등 특별한 경우 사용하는 의복, 그리고 백열전구, 전선, 망치등 공구를 보관하

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마루에 부착된 선반 역시 노인주거의 특성이 강한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없었던 공간이지만 세대주가 고령이 되어 기억력과 시력이 감퇴하여 다락과 벽장에 보관하면 찾기 힘들기에 쉽게 눈에 띄는<사진14> 개방형 수장공간이 필요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14> 마루선반

4.10. 본채와 사랑채 연결공간

대상가옥의 56.3%인 9개 가옥에서 관찰된 주요 수장공간으로, 본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부분에 간이로 마련된 다용도 공간이 있다. 1차형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1, 2, 3 차 가옥에 있어, 안방이 있는 본채와 사랑방및 창고등이 있는 별채가 만나는 곳에 두 건물 치마가 자연스럽게 맞닿아 만들어진 다용도 공간인데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재래 농가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일부가옥은 그 용도를 명확히 파악할수 없게 산만한 상태를 보인다. 7개 가옥은 연결 공간에

(1)플라스틱통, 손수레, 나무절구등 수시로 사용하는 대형 가사도구, (2)연탄, 장작, 석유등 연료, (3)호박, 보리, 옥수수등 주식 이외의 보조식량, (4)상자, 병, 비료푸대, 자루등 用器, (5)벽돌, 시멘트, 비닐 등 건축자재, 그리고(6)가축사료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한다.

<사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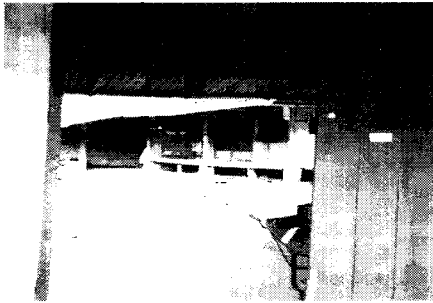
<사진 15> 본채와 사랑채 연결부분의 처마밑 수장공간

반면 70세이상 고령 노인부부가 사는 1차 1가구와 2차 1가구 경우 연결공간은 여름과 초가을에는 다른 가구들과 비슷한 이용 양상을 보이지만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추운 계절에는 외출이 힘들므로 생활도구 일부와 마늘, 시래기등 건조식품 외에 벗짚, 오물, 생

활쓰레기를 함께 산적함은 물론 개까지 사육하고 있어 수장공간과 폐기물 처리 및 가족사육장기능을 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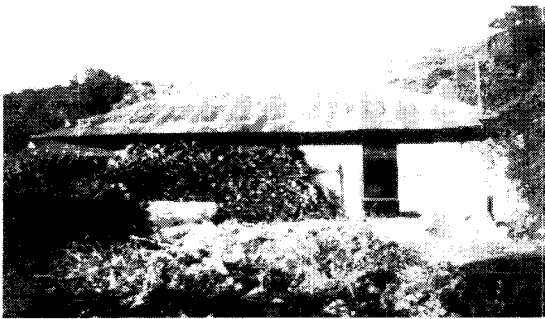
4.11. 대문

대문 안과 밖은 다자 가옥에게 모두 중요한 수장공간이 된다. 대문을 끼고 있는 행랑채 공간은 대문을 들어서면서 안쪽에 2개 문간방 兩間이 이루는 공간이 수장공간 역할을 한다<사진16>. 대문안 수장공간은 청소도구, 소형 운반도구(cart, 자전거), 문간방 연료(연탄, 장작)등 가사도구를 주로 보관하며 기온이 높은 늦봄과 초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보관해야 하는 농작물(마늘, 생강, 양파, 감자등)을 주로 대문안 양옆 벽 윗 부분에 매달아 놓는다. 말하자면 봄과 여름 동안 음지성 농작물 보관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6> 소형 cart가 보관된 대문안 공간

대문밖 처마밑도 다자가옥의 주요 수장 공간이 되는데 장작을 쌓아놓거나<사진17> 값이 비교적 싼 농작물을 건조시키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특히 강한 태양광선이 집중되는 10 11월은 빨리 건조시킬 필요가 있는 농산물 중 도난우려가 없는 값싼 것(시래기, 옥수수, 수수등)을 처마밑에 매달아 건조시키는 공간이 된다.



<사진 17> 건조식품을 보관한 대문밖 처마밑 공간

4.12. 埋立 보관공간

매립 보관공간은 겨울동안 식품을 흙에 묻어두는 공간으로서 다자 가옥 1개 가구에서 관찰되는 노인 특유의 수장공간이다. 젊은 사람들의 농가에서는 김치, 무우, 젓갈류 향아리를 땅 속 깊이 파묻고 그 위에 볏짚을 덮어 놓으므로(이철호외,1987;이철호,1995) 별도의 실내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노인은 깊이 파묻어 놓고 그 깊

은 곳에 썩을 뻔혀 꺼낼 힘이 없기에, 50cm이하의 얇은 깊이로 파묻고 대신 보온을 위해 그 위에 나무와 흙벽돌, 철판등으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실내 수장공간을 꾸몄다<사진18>. 겨울이 지난 뒤 매립 보관공간의 앞 문을 열어놓고 호박, 깨, 고추모종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즉 겨울동안은 견고한 보온장치를 하고 그 안에 식품을 흙에 얹게 묻어둔 상태로 이용하고 봄, 가을은 부분적 보온이 된 상태에서 모종을 키우는 장소로 활용하는 다용도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18> 다자형 가옥 대문옆에 있는 매립형 수장공간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60세이상 한국 노인들이 생활하는 재래 농가의 주거공간내 收藏空間에 관한 관찰및 면담에 의해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표1>.

- 1.안방다락은 조사대상 가옥중 68.8%인 11개가옥이 구비하고있는 주요 수장공간으로서 高價 기호식품과 특별한 경우 사용하는 생활도구, 비상약품, 그리고 비축용 소비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다. 또한 안방을 통해 출입하며 아궁이 바로위 부엌천장까지 뻗어 있기에 (1)노인 부부의 관리및 통제, 그리고 (2)고온에도 변하지 않는 품목 보관을 기능으로 한다.
- 2.건넌방 埋藏은 조사대상 가옥의 18.8%인 3개 가옥이 구비하고 있는 수장 공간으로서 다자형 가옥에만 존재한다. 계절에따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생활도구와 과거 자녀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주로 보관한다.
- 3.간이 부엌은 조사대상 가옥의 31.3%인 5개 가옥이 구비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收藏과 가사노동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이다. 과거 대가족이 살때 노인이나 행랑채 머슴이 사용하던 소형 부엌공간인데 평소에는 장작과 쌀자루, 절구등을 보관하는 수장공간 역할을 한다.
- 4.개방형 부엌다락은 다자 가옥 1채에서만 관찰되는 공간으로서 부엌 한쪽 벽면 나무계단과 천장 사이 공간에 대형 알미늄솥, 바가지, 마구니등 주로 명절때나 손님접대에 사용하는 대형 취사도구를 보관한다.

<표 1> 수장공간 유형과 주요기능

공간위치	명칭	노인생활특성	주요기능 및 용도
방	안방다락	가장권위관영	1.高價기호식품 특별한경우 사용하는 생활도구 비상약품, 비축용 소비용품보관 2.안방을 통해서만 출입 3.가장의 관리와 통제를 받음
	사랑방 벽장	과거자녀사용물건 보관을 통한 애착심 발휘	1.계절사용형 생활도구보관 2.사랑방 뒷문앞 틈마루와 연결될 경우 건조시킨 농산물의 가공 작업공간이되며 벽장은 틈마루에서 가 공한 식품을 처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공간이 됨. 3.과거에 자녀가 사용하던 책,생활도구등을 보관하며 가족간 유대를 지킴
부엌	간이부엌	과거 대가족제의 노인용 소형부엌	1.연료,곡식,주방기구 일부 보관 2.과거 대가족이 살때 노인이나 행랑채 머슴의 소형 부엌 3.장독대와 창고에서 일정기간 먹을 양을 파악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공간
	개방형 부엌다락	옛날생활도구보존	1.문이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 2.명절때나 손님접대에 사용하는 대형 취사도구 보관 3.무엇구조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쓰던 생활도구를 명절에 사용할때까지 보관하기위해 만들어진 공간
	부엌선반 및 불박이 찬장	자녀와의 교류 및 노인의 주거애착 반영	1.벽속을 파고 설치한 불박이 찬장과 그 위 선반이 상호 보조 2.찬상에는 조미료와 기호식품 커피잔 보관 3.선반에는 그릇과 바구니등 조리도구 보관 4.평소 생활공간을 최소화하였다가 필요시 자녀에게 개방 5.자녀가 즐겨쓰는 식품과 그릇보관 6.자녀와의 교류와 노인주거애착 양식이 만들어낸 공간
	부엌뒤	전통식품제조 및 보관	1.부엌 뒷문밖 뒷뜰에 구비된 공간 2.濕式형과 乾式형 공간의 현저한 기능적 차이관찰 3.습식형 공간은 수도와 배수구를 갖추고 농작물을 씻고 다듬고 껍질을 까고 소금에 절이는 등의 가공작업 가능 4.습기를 피하기위해 구비된 공간으로 메주와 갖감,호박등을 건조시키는 공간
	마루밑	노인들이 즐기는 찻갈류 숙성공간	1.모든 재래농가에서 관찰되는 수장공간 2.돌계단을 쌓은 위에 설치된 유형과 평지위에 설치된 공간등 두가지 유형이 관찰됨 3.돌계단위 유형은 신발,우산,청소도구,오강등 잡다한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임. 4.흙바닥 마루밑은 마루밑 공간에 좀더 깊은 지하실을 파놓고 사람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월동 농작물과 찻갈류를 보관함.
기타공간	마루선반	고령노인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설치	1.모기약 비누등 소모품과 구두 장화등 특별한 경우 사용하는 의복, 백열전구 전선 망치등 공구를 보관하는 공간 2.세대주가 고령이 되어 기억력과 시력이 감퇴하여 쉽게 눈에 띄는 공간이 필요해 만들어진 것.
	대청마루 간이 벽장	조상의 유품보관 노인체형에 맞는 소형 공간	1.-자형 소형 농가 안방앞 대청마루 옆 벽면에 있는 소형 공간 2. 50cm·130cm×50cm크기 3.노인체형과 생활습관에 맞는 오래된 소형 생활도구 보관 4.향로,숯그릇,약탕기,제기등 조상이 전해준 秘品보관 5.제사나 손님접대등 특별한 경우에만 열어보며 평소에는 청소도구를 쌓아놓아 막아놓음
	본체와 사랑채 연결공간	외출이 힘든 겨울에는 생활쓰레기 산적 및 개사육장소로 활용	1. 본체와 사랑채 연결부분 처마밑에 마련된 다용도 공간 2.그,다,라 자 가옥에서만 관찰됨 3.(1)대형 가사도구, (2)연탄장작,석유등 연료, (3)호박,보리, 옥수수등 주식 이외의 보조식량, (4)삼자,병,보료푸대,자루등 用器,(5)벽돌,시멘트,비닐등 건축자재, (6)가축사료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됨. 4.고령 노인부부가 사는 가구경우 비교적 추운 계절에는 생활도구일부와 건조식품외에 생활쓰레기를 함께 산적하고 개를 사육함.
	대문주변	노인이 즐겨 사용하는 장작연료보관	1.대문안과 밖은 모든 ㄱ자가옥에서 관찰됨 2.대문안쪽 2개 문간방 兩壁이 이루는 공간과 대문밖 처마밑. 3.대문안 수장공간은 청소도구, 운반도구, 문간방 연료보관 4.그늘에 보관해야하는 농작물을 대문안 뒷부분에 매달아 보관 5.대문밖 처마밑은 강한 태양광선이 집중되는 10-11월에 빨리 건조시킬 농산물을 보관
	埋立 보관공간	땅을 깊이 팔 힘이 부족한 고령노인용 매립보관공간	1.겨울동안 식품을 흙에 묻어두는 공간. 2.고령노인특유의 수장공간 3.김치독을 흙에 묻고 나무와 흙벽돌 철판으로 벽과 지붕덮음 4.파,양파,무우등 채소를 흙에 묻어 신선한 상태로 보존 5.겨울이 지난뒤 문을 열어놓고 모종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

5.부엌 뒷 문 밖 수장공간은 濕式형 공간과 乾式형 공간등 2종류가 있다. 습식형 공간은 수도와 배수구를 갖추어 농축산물을 씻고 다듬고 소금에 절이는 가공작업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곳이다. 건식공간은 메주와 낫감, 호박등을 건조시키는 공간으로서 필요시 난로를 설치하기도한다.

6.부엌선반및 붙박이 찬장은 벽속 붙박이 찬장과 벽위 선반을만들어 평소 사용 안하는 주방기구를 보관했다가 자녀 방문시에 개방되는 공간이다.

7.대청마루 간이 벽장은 가로 약 50cm, 세로 약 130cm, 넓이 약 50cm의 소규모로서 노인의 체형과 생활습관에 맞는 오래된 소형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공간이다.

8.마루밑은 조사대상 가옥 전부가 구비하고 있는 수장공간이다. 돌계단이나 댕돌위에 설치된 마루의 밑 공간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잡다한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곳이다. 평지와 같은 높이 흙바닥 마루밑 수장공간은 마루밑 공간에 좀더 깊은 지하실을 파놓고 사람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9.마루선반은 --차형 1개 가옥에서만 관찰된다. 세대주가 고령이 되어 기억력과 시력이 감퇴하여 다락과 벽장에 보관하면 찾기 힘들기에 쉽게 눈에 띄는 개방형 수장공간이 필요해 만들은 것이다.

10.본채와 사랑채 연결공간은 대상가옥의 56.3%인 9개 가옥에서 관찰된다. 대형 가사도구, 연료, 보조식량, 用器, 건축자재, 가축사료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고령의 노인주거에 있어서 겨울철에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가축사육에도 활용되는 특이성을 지닌다.

11.대문 안과 밖은 口자 가옥에게 모두 중요한 수장공간이 된다. 대문안 수장공간은 청소도구, 소형 운반도구, 문간방 연료등 가사도구를 주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보관해야 하는 농작물을 매달아 놓는다. 대문밖 처마밑은 강한 태양광선이 집중되는 10-11월에 빨리 건조시킬 필요가 있는 농산물을 매달아 건조시키는 공간이 된다.

12.埋土 보관공간은 겨울동안은 견고한 보온장치를 하고 봄,가을은 부분적 보온이 된 상태에서 모종을 키우는 장소로 활용하는 다용도 공간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연구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한국에 보존되어 있는 재래농가가 강원, 충청, 경기, 경상, 전라등 각 지역별로 조사되어 각 수장공간의 이용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래농가에서 관찰된 다양한 형태의 수장공간에 대해 적절히 표준화된 명칭및 규격을 제정하고 도면화하여 현대적인 건축방식에 의해서도 재연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부분적으로 주택개량이 진행된 농가의 수장공간의 유형과 이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노인들이 사용해온 재래식 수장공간의 구조나 규모가 변경되었을 때

생기는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자혜(1992), 노부독립가구의 형성과 부부관,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2. 김태현,서승희(1987),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7(2)
3. 대한사회복지개발원(1994),복지시대.
4. 대한사회복지개발원(1996),복지시대.
5. 박경란(1995),대도시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실태및 욕구, 한국노년학회지 15(2)
6. 박충선,남정림(1996),노인단독가구의 생존전략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6(2)
7. 원영희(1995),동.별거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5(2)
8. 이가옥 외(1990),노인단독가구 실태에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원.
9. 이인수(1995),노인복지와 실버산업,일진사
10. 이인수(1996),장기보호시설의 개발에관한 연구(I), 한국노년학회지 16(1)
11. 이창길(1995),한국농촌의 노인부양 유형에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12. 이철호외(1987),한국의 수산발효식품, 유림문화사.
13. 이철호외(1995),새로쓰는 우리 음식이야기, 유림문화사.
14. 최인호,홍승재(1997),전통주택의 다락에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2),
15. 한경혜(1996),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한국노년학회지 16(2)
16.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2),노인주거시설 개발을위한 기초조사,홍익재
17.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노인생활실태조사,홍익재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노인부양에관한 연구.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대한사회복지개발원
20. 한국주택협회(1993),실버산업관련 노인주택에관한 조사 연구.
21. J.Pynoos et al(1993),*Housing the Aged*,Elsevier Press,London.
22. P.Oliver(1985),*The Dwellings*,University of Texas Press.

<접수 : 1998. 4. 25>